



얼음 호수 위 박진감 넘친 질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스위스 생 모리츠 동계스포츠대회에서 19일 대회의 꽃인 제68회 생 모리츠 그랑프리 출전 선수들이 질주하고 있다. 얼어붙은 생 모리츠 호수위에서 펼쳐지는 생모리츠 동계스포츠 대회는 스키 마라톤, 썰매경기 등 다양한 종목이 펼쳐진다. /AP연합뉴스

루니 뜬 현대 “리그 2연패 보이네”

삼성 꺾고 5연승 행진 승차없이 선두 맹추격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설 연휴 마지막 날 ‘속적’ 삼성화재 블루팡스를 꺾고 정규리그 2연패

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

현대캐피탈은 19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제2체육관에서 열린 2006~2007 힐스테이트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5라운드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 손 루니(24점·블로킹 2개)의 영양가 만점 활약에 힘입어 레안드로(37점)가 분전한 삼성을 3-1(25-21, 22-25, 25-21, 25-20)로 물리쳤다.

이로써 현대캐피탈은 최근 꺾은 5연승 행진을 벌이며 17승5패를 기록, 삼성화재(17승4패)를 승차 없이 승률에서 뒤진 2위로 바짝 뒤쫓아 선두 진입 기회를 부풀렸다.

현대는 첫 세트 13-11에서 신경수, 송인석의 잇단 속공에 이어 상대 공격수 레안드로의 연속 백어택 실책에 편승해 순식간에 4점을 몰아친 뒤 줄곧 리드를 지켜 기선을 잡았다.

그러나 삼성은 2세트 들어 끈끈한 조직력이 살아나고 레안드로의 스파이크가 불을 뿜었다.

레안드로는 상대 용병 루니와 네트를 사이에 둔 맞대결에서 서브 에이스 1개 등 혼자 12점을 끌어담으며 공격을 주도했고 삼성은 24-22에서 센터 고희진이 송인석의 강타를 가로막아 세트를 만회했다.

팽팽하던 승부는 3세트 후반부터 현대쪽으로 기울었다.

1세트 무득점에 이어 2세트 9득점으로 컨디션을 찾은 루니는 3세트 20-18에서 상대 블로커 한 뺨 위에서 내리꽂는 수직 강타에 이어 상대 라이트 레안드로의 공격을 블로킹하며 점수를 4점차로 벌렸다.

기세가 오른 현대는 24-21 레프트 송인석이 레안드로의 백어택을 가로막으며 승부의 물꼬를 틀었다.

삼성은 4세트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현대의 높은 블로킹 벽에 막혔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 ‘꿀찌’ 상무는 장광균(24점), 이동훈(18점), 이병주(16점)의 활약으로 한전을 3-1(26-24, 25-23, 26-28, 25-21)로 격파했다.

/최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9일 서울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2006~2007 프로배구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와 천안 현대 스카이워커스의 경기에서 천안 현대 손 루니가 공격을 하고 있다.

■ 메이저리그 투수들 보직 윤곽

서재응 3선발 유제국 5선발 김병현 미정

‘서재응은 3선발, 유제국은 5선발 후보, 김병현은 오리무중’

미국프로야구 스프링캠프가 지난 17일 플로리다주와 애리조나주에서 일제히 개막된 가운데 메이저리그 홈페이지가 각 구단별로 초반 분위기를 전하는 리포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중 우완투수 서재응과 유제국(이상 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은 각각 팀내 3선발과 5선발 후보로 지목됐고 김병현(콜로라도 로키스)은 아직 보직이 확정되지

않은 투수로 분류됐다.

조 매든 탬파베이 감독은 19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와 인터뷰에서 “스캇 카즈미어, 케이시 포섬, 서재응, 제임스 실즈를 1~4선발 투수로 정했다. 나머지 5선발 투수는 유제국, 에드윈 잭슨, 브라이언 스톱스, JP 하월, 제이슨 허벨 등 여러 후보군에서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두 번째 선발 투수로도 거론되던 서재응은 3선발로 굳어지는 반면 지난 14일 시카고 컵스에서 이적한 유제국은 곧바로 5선발 투수로 언급되는 게 고무적이다.

콜로라도 홈페이지는 같은 날 김병현과 조시 포그 등 두 우완 투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선발전에 합류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심지어 선발 요원을 찾기 어려웠던 예년과 달리 올해 로키스에서는 선발 투수가 넘쳐 김병현과 포그는 여전히 트레이드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도 곁들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앤서니 김 공동 9위

PGA 닛산오픈 최종

찰스 하웰3세(미국)가 ‘패밀리맨’ 필 미켈슨(미국)의 2연승을 저지하면서 시즌 첫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기대주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공동 9위로 시즌 처음 ‘톱10’에 이름을 올렸고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공동 22위, 나상욱(23)은 공동 33위를 각각 기록했다.

하웰3세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리비에라골프장(파71·7천260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닛산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미켈슨과 연장 승부를 펼친 끝에 정상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희원 4연더 7위

LPGA SBS오픈 최종

‘에비엄마’ 한희원(29·힐라코리아)이 2007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전에서 7위에 올랐다.

임신 3개월째인 한희원은 18일(한국시간) 하와이주 오하우 터틀베이골프장(파72·6천578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SBS오픈 최종 3라운드에서 2오버파 74타를 쳐 최종합계 4연더파 212타로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미국 신예 그룹의 선두 주자 폴라 크리머는 최종 합계 9연더파 207타를 쳐 홀리에타 그라나다(파라과이·8연더파 208타)를 1타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